

‘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’ 공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1.14. 경향신문은 「‘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’ 공개하라니…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기획재정부」 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일·가정양립 제도개선 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 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기획재정부는 ‘일·가정양립 제도 개선’의 일환으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수 외 가족친화 인증여부, 직장어린이집 수, 기관별 출생률 등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.
- ‘공공기관 가임기 여성수’는 기관별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 추가 검토 대상이 아니며, 기획재정부가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
- 아울러, 기관별 출생률 등 공시항목 추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기획재정부	공공정책국	책임자	과 장 양재영 (044-215-5650)
	경영관리과	담당자	사무관 신동호 (rain0136@korea.kr)